

## 자기표현과 공동체 의식 사이의 균형에 관한 연구 - 별무리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

이수 (한동대 학부생)

### 목 차

- I. 초록
- II. 서론
  -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 III. 이론적 배경
  - 1. 자기표현과 자기검열
    - 가. 자기검열 현상의 개념
    - 나. 공동체 환경에서의 자기검열
  - 2. 기독교 공동체 이해
    - 가. 기독교 공동체의 정의
    - 나. 성경에 기반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
- IV. 사례 분석: 별무리 공동체
  - 1. 별무리 학교의 교육 이념
  - 2. 공동체 활동 속 자기표현 사례
    - 가. 자치 활동
    - 나. PBL (Project Based Learning) 활동
    - 다. 관계 갈등 사례
- V. 조사 과정
  - 1.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 2. 설문조사 구성 및 절차
  - 3. 자료 분석 방법
- VI. 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결과
    - 가. MBTI 성향별 분포

- 나. 학년별 별무리 학교 가치에 대한 인식
- 다. 자기표현의 실제 발현 정도
- 2. 자기표현 양상 분석
  - 가. 상황적 변수에 따른 자기표현
  - 나. 성향적 변수에 따른 자기표현
  - 다. 자기검열과 갈등 속에서의 자기표현
- VII. 논의
  - 1. 별무리 공동체의 특성과 자기표현
  - 2. 자기검열 관점에서의 해석
  - 3. 공동체 의식과 개인 간의 균형 문제
- VIII. 해결 방안 제시
  - 1.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를 통한 자기표현과 공동체성의 균형
  - 2. 별무리 공동체 적용 방안
- IX. 결론
  - 1. 연구 결과 요약
  - 2. 연구의 의의
  - 3. 연구 제한점
  - 4. 후속 연구 제언
- X. 부록

## I. 초록

본 연구는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인 별무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자기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동체의 조화와 연합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에서 개인의 자기표현이 촉진되는 양상과 동시에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구조적 긴장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검열 이론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과 별무리 고등학교 공동체의 특성을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설문조사와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자기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조절되거나 제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별무리 공동체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강한 소속감과 관계 중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책임감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기대와 관계 유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스스로 검열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자기표현은 전면적으로 억압되기보다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현되었으며, 특히 공식적·집단적 맥락에서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본 연구는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 개념[10]을 통해 자기표현과 공동체성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자기 경험을 성찰적이고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표현 방식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내 건강한 소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 환경 속 자기표현 문제를 개인의 성향 차원이 아닌 구조적·관계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교육적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I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별무리 고등학교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기숙형 대안학교로, 기독교 교사 선교회를 기반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며, 공동체, 제자도, 살롬, 소명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과 생활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생활, 또래 관계 등 학생들의 일상 전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기숙학교라는 구조적 특성상, 별무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금요일 하교 이후와 주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동일한 공간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생활 환경은 학생들에게 협력과 배려, 이타성과 같은 공동체적 덕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돕는 한편,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체의 조화와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밀도 높은 공동체적 환경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 양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 제시하는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인 자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집단의 정서와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집단 내 암묵적인 기대와 규범이 개인의 감정 인식과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갈등 상황을 인식하더라도, 관계의 균열이나 공동체 분위기의 저해를 우려하여 자신의 불편함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신앙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에서는 ‘좋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암묵적인 기준이 형성되기 쉬우며, 이는 자기표현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개인의 내면에 축적되어 정서적 부담이나 관계 피로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별무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관계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 성격 차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만 이해되기보다는, 공동체적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며, 별무리 공동체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별무리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관계 갈등과 자기표현의 양상을 파악하고,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건강하게 자기표현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설문조사 중심의 질적·양적 분석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한 자기검열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갈등 상황에서 느낀 감정의 종류,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했는지 혹은 조절·억제했는지, 표현을 망설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관계 갈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자기표현을 제한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동체의 분위기, 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 등이 자기표현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별무리 공동체의 신앙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설문은 신앙을 개인의 내적 신념과 실천의 영역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되고 유지되어야 할 공동체적 가치로 인식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 인식이 개인신앙 중심인지, 공동체 신앙 중심인지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가치 인식의 방향성이 갈등 상황에서의 자기표현 방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상황적 요인과 성향적 요인이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다. 공식적인 집단 상황과 비공식적인 소규모 관계 상황에서의 표현 방식 차이, 갈등 상대와의 친밀도, 개인의 성향적 특성 등이 자기표현 혹은 자기검열 선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표현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공동체 환경과 관계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악화나 공동체 분위기의 변화를 우려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 신앙 중심의 가치 인식이 강할수록, 자기표현보다 관계 유지를 우선시하며 감정을 조절하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자기검열과 자기분화 이론, 그리고 성경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갈등 사례를 이론적 틀로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자기표현의 문제가 단순한 부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긴장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별무리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책임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III. 이론적 배경

#### 1. 자기표현과 자기검열

##### 가. 자기검열 현상의 개념

자기검열(Self-Censorship)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의견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상되는 반응이나 불이익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나 제도,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적 검열과 달리, 개인 내부에서 작동하는 내면화된 통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검열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침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직·간접적 압력이 심리적으로 내면화된 결과로 설명한다.

자기검열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음에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교육학과의 사회정치 심리학 교수인 Bar-Tal은 자기검열을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드러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부정적 평가를 예상하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고의적으로 보류하는 행위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검열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라기보다, 표현 가능성과 억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개인의 신념과 감정으로 구성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내면화한 ‘사회적 자아’가 공존하는 구조로 이해한다. 자기검열은 바로 이 두 자아가 충

돌하는지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개인은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끊임없이 판단하며 자기표현의 수위를 조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규범이나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실제생각이나 감정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갈등과 긴장을 동반한다.

자기검열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교육, 조직,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나타난다. 특히 공동체나 조직과 같이 관계 유지가 중요한 환경에서는 개인의 자기표현보다 집단의 조화와 안정이 우선시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견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자기검열이 개인의 성향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와 관계 역학 속에서 강화되는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학습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Roberts와 Nason의 연구는 이러한 자기검열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협력적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 팀 내 갈등을 피하거나 소속 집단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학습 수준이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표현 욕구와 공동체 유지라는 가치 사이에서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며, 결국 자기검열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환경일수록 자기검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검열이 반복될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다. 선행연구들은 자기검열 경험이 불안, 위축, 수치심, 자존감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동반하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성장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의사소통의 질이 낮아지고, 집단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조적 잠재력 역시 약화될 위험을 지닌다.

이러한 자기검열 개념은 본 연구가 다루는 공동체성과 자기표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와 같이 강한 공동체적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자기검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난 헌신과 연합의 이상이 때로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 충돌하며 갈등을 낳았던 성경적 사례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자기검열은 공동체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작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검열 현상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기표현이 어떻게 제한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머레이 보웬의 자기분화 이론을 통해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자기검열 개념은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나. 공동체 환경에서의 자기검열과 개인 성향과의 관계성

조직 및 공동체 이론에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개인이 공동체 내 관계와 목적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와 깊이 연결된 심리·사회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갈등은 희소한 자원 배분, 역할 수행의 불균형, 목표나 가치 인식의 차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갈등의 심화 여부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귀인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갈등은 객관적 상황 그 자체라기보다, 그 상황을 둘러싼 개인의 해석과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별무리 고등학교와 같은 기숙형 공동체 환경에서는 개인이 특정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반복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것인지, 혹은 타인이나 구조적 환경에 귀인할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정서 반응과 행동 전략을 보이게 된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갈등 원인을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같이 통제 가능한 내적 요인으로 지각할 경우, 개인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타인의 의도, 제도, 분위기와 같이 통제 불가능한 외적 요인으로 갈등을 인식할 경우, 회피, 포기, 정서적 위축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귀인 성향은 공동체 내 자기표현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갈등 상황을 반복적으로 외적 요인에 귀인하는 개인은, 자신의 표현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게 되며, 이는 점차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공동체 내 갈등 경험은 개인의 인지 구조를 통해 자기검열이라는 심리적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기검열은 명시적인 강요나 규범이 없어도, 갈등을 회피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방어적 행동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갈등 상황에서 외적 귀인 성향이 강할수록 정서적 불안과 위축, 소극적 대처 방식이 강화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창의적 표현이나 자율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개인의 동기와 적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귀인이론의 동기 모형에 따르면, 통제 가능성이 낮다고 지각된 갈등 상황은 수치감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이는 행동 억제와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를 공동체 환경에 적용할 때, 자기검열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내 갈등 경험과 그에 대한 귀인 방식이 누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공동체의 과도한 응집성이나 관계 중심적 문화 속에서 갈등이 부정적으로 인식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전략을 학습하게 된다. 이는 겉으로는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공동체 환경에서 경험되는 갈등이 개인의 귀인

성향을 매개로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기표현 사이의 긴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갈등과 귀인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핵심 연결고리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2. 기독교 공동체 이해

### 가. 기독교 공동체의 정의

기독교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Ekklesia)’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스 쿡(Hans Küng)은 그의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에클레시아’가 신약성서 이전 세속 그리스 사회에서도 사용되던 용어였음을 설명한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 시민들의 집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리스 사회에서의 ‘에클레시아’는 시민이나 전령관의 부름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정치적 집회를 의미하는 세속적 개념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에클레시아’는 종교적 의미의 교회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에 한스 쿡은 신약성서에서 사용된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할(kahal)’을 번역한 단어로, ‘소집된 모임’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야훼의’ 혹은 ‘주님의’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 하나님에 의해 불러 나온 모임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에클레시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을 참 하나님의 집회이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스 쿡은 ‘에클레시아’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로 정의하면서, 봉사를 통해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로 설명한다. 이 맥락에서 그는 ‘공동체’와 ‘교회’를 상호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제시한다. 비록 ‘공동체’라는 개념이 교회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나,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존재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교회는 인간의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틴 폴(Christine D. Pohl)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대안적 공동체로 설명한다. 그는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의 논의를 인용하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로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다.<sup>66)</sup> 또한 폴은 성육신하신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듯이,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의 정의는 본 연구가 다루는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기표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기독교 공동체는 연합과 섬김, 관계적 조화를 핵심



가치로 삼으며, 이는 공동체의 안정과 결속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의 조화와 일치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억제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기숙형 기독교 학교와 같이 일상 전반을 함께 공유하는 밀접한 공동체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교회를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이해하는 신학적 관점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자기검열과 자기표현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기표현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탐구하고자 한다.

#### 나. 성경에 기반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성경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며,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였다. 이는 신앙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삶 속에서 실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가 공동체적 연합과 상호 책임을 신앙의 핵심 가치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공동체성이 항상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내적 동기와 공동체가 기대하는 헌신 사이의 긴장이 갈등으로 드러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핵심 문제는 재산을 일부 감추는 행위 자체보다도, 공동체의 이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실제 상태를 숨기고 거짓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공동체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표현을 조정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된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동체 내 소수 집단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성의 강조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드러낸다.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개인 과집단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조정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 사례들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 단순히 이상적인 연합의 상태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자기표현 사이에서 지속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역동적인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동체성이 강화될수록 개인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조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함께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는

현대 교회 공동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공동체 내부에 형성된 친밀한 관계와 암묵적 규범이 새로운 구성원이나 특정 집단의 참여와 표현을 위축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이 지적된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은 개인의 자기표현을 전적으로 억제한 구조라기 보다, 공동체적 연합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표현이 조정되고 때로는 긴장 관계에 놓였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기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이후 장에서 논의할 공동체성과 자기표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된다.

#### IV. 사례 분석: 별무리 공동체

##### 별무리 학교의 교육 이념

별무리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가치 기반 교육 공동체로서, 학교 생활과 학습 전반을 핵심가치에 근거하여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설정한 네 가지 핵심가치는 공동체, 제자도, 살롬, 소명이며, 이는 단순한 선언적 규범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과 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교과 수업, 자율 시간표, 멘토링 제도, 교칙, 그리고 전체예배 및 공동 행사 등 학교 운영의 모든 영역에 내재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 속에서 행동과 사고를 조율하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4대 가치 중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치는 ‘공동체’로 나타난다. 공동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동역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관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 책임 있는 행동을 체험하며, 공동체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추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동체 중심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자기검열을 경험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진다. 즉, 공동체적 기대와 규범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조절하고, 때로는 의견 표출을 제한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자도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며,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신적 예배와 실천적 순종을 경험한다. 살롬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의와 평화를 삶 속에서 구현하며, 책임감과 긍휼로 응답하는 삶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평과 의를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와 궁핍한 이들을 섬기는 구체적 경험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명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협력자이자 공동사역자로서 세상을 능동적으로 돌보고 개발하며 문화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학교의 전 교육 과정과 생활 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원리로서, 단순히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적 활동 속에서 체험적 학습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모이는 자리마다 핵심가치를 제창하는 전통과 학교 주제 말씀인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반한 공동체적 삶의 지향은, 학생들이 개인적 성취보다 공동체적 협력과 선한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체득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별무리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 속에서 책임과 섬김을 실천하며, 동시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기표현 양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 별무리학교가 구축한 공동체 중심의 가치체계가 학생들의 자기검열과 자기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기표현이 어떤 활동 영역에서, 어떤 상황적·성향적 조건 하에서 발현되는지를 분석하고,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표현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고자 한다.

#### 공동체 활동 속 자기표현 사례

##### 가. 자치 활동

별무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와 기숙사 자치라는 공식적 장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자치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매 회 다양한 주제와 이벤트가 마련되어 학생들이 학교 전체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청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내 규정, 행사 기획,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교생 청원 제도는 단순히 의견 제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이 공동체 차원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생활의 주체성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동시에 체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반면, 기숙사 자치는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며, 주로 기숙사 내 생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소규모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기숙사 규칙, 생활 편의, 불편 사항, 공동 공간 이용 방법 등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기숙사 자치는 학교 자치와 달리 규모가 제한적이고 비교적 친밀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작은 집단 내에서도 민주적 의사소통과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학교 자치와 기숙사 자치는 각각 다른 규모와 맥락 속에서 학생들에게 공식적 발언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자치는 전교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의사결정과 참여를 경험하게 하며,

기숙사 자치는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공동체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체득하게 되며, 이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기표현과 참여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장치로 기능한다.

#### 나. PBL (Project Based Learning) 활동

별무리학교에서는 PBL(Project-Based Learning, 가치 융합 프로젝트)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적 가치와 학습 경험을 통합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PBL은 단순한 교과 지식 습득을 넘어, 기독교적 세계관과 학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중심의 장기 프로젝트로 설계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교사와 협력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외부 구성원과의 협력하며 실제적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과 의견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선한 영향력과 이타적 성향을 발휘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2025년 4쿼터 기준 별무리 고등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인 알트시스(Altsis)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서는 총 30개의 가치 융합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특정 교과 지식과 실천적 경험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 문제 해결 경험과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PBL 시스템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며, 공동체적 책임과 이타적 행동을 고려하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표현과 공동체적 참여를 동시에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별무리학교는 학생들이 학습과 공동체 활동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하면서도 집단과 타인을 위해 선한 영향력과 이타적 행동을 실천하는 균형적 자기표현 능력을 체득하도록 돕고 있다.

#### 다. 관계 갈등 사례

별무리학교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관계 갈등은 즉각적인 대립이나 공개적 충돌의 형태보다는, 감정과 불편함을 일정 기간 억제한 이후 한 번에 표출되는 양상이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연구자가 기숙형 공동체 학교에 2년간 재학하며 주변 학생들의 관계 경험을 참여 관찰한 결과, 갈등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이를 참거나 유보하는 선택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특정 개인의 성향에 국한되기보다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공동체 생활이 일상화된 학교 구조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자기표현을 주저하게 되는 주요 이유로는, 개인적인 문제 제기가 프로젝트의 진행이나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학생들은 갈등을 드러내는 행위가 팀워크를 해치거나 공동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며,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안정과 기능 유지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기숙형 학교라는 특성상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동일한 공간과 관계망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점은, 갈등 이후의 어색함이나 지속적인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여 갈등을 더욱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의 표면화를 억제하고 공동체의 외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개인 내부에 축적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과정에서 갈등은 즉각적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비공식적인 뒷담화, 소극적인 거리두기, 관계 회피와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후 이러한 누적된 감정은 점진적인 조율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감정의 폭발이나 관계 단절과 같은 형태로 급격히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공동체성과 이타적 성향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이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배려를 함양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갈등 상황에서의 건강한 자기표현을 지연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양가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 V. 조사 과정

### 1.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별무리학교 공동체 안에서 강조되는 공동체 의식이 학생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기질적 성향이 자기표현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동체 중심의 생활 구조를 지닌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조절과 선택의 양상을 개인 성향과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별무리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기반으로 한 대안학교이자 기독교 공동체로서, 학생들이 학업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과 관계 형성 과정 대부분을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의 언행과 태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조화와 관계 유지를 고려하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조절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을 개인에게 고정된 성향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관계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동일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의 위치, 소속 집단의 성격, 상황의 공식성 정도에 따라 자기표현의 방식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 환경이 개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기질적 성향이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조절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관계 반응 경향을 중심으로 기질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성향이 공동체 가치 인식과 자기표현 경험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성향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별무리학교 전교생 164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답한 53명이다. 응답자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년별 경험 축적의 차이가 공동체 인식과 자기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는 공동체 생활의 밀도가 높고 관계의 지속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연구 환경이라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비교적 자유롭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 대상 설정과 연구 설계는 별무리학교 공동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기질, 공동체 의식, 자기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 설문조사 구성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문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그리고 개인의 기질적 성향과 상황적 변인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설문지는 총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되었으며, 응답자의 인식 흐름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를 갖도록 배열되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자신의 경험을 단절적으로 떠올리기보다, 학교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경험을 연속적으로 성찰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주로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개인적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술형 응답을 병행하였다. 선택형 문항은 응답자가 자신의 인식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의 강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정량적 응답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의 맥락과 경험을

보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되었으며, 동일한 문항과 조건에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 전에는 연구의 목적과 응답 방식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제공하여, 응답자가 설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 과정에서 정답이나 평가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솔직한 인식과 경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설문 진행 과정에서는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문항 수를 조절하였으며, 중도 이탈 없이 응답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든 응답은 연구 종료 후 분석 단계에서 통계적 자료로 처리되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구성 및 절차는 연구 대상자의 응답 신뢰도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개인의 기질적 성향과 상황적 변인을 보다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동체 중심 학교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응답 자료를 연구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별무리학교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기질적 성향이 자기표현 경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응답자의 인식 경향과 경험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자 하였다.

선택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정량적 자료는 각 문항별 응답 빈도와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응답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해석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의 경우 학년별 응답 분포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교 생활 경험의 축적 정도에 따라 공동체 인식과 자기표현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술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정성적 자료는 응답 내용을 의미 단위로 분류하여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과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응답을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자기표현의 조절 양상과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분석은 선택형 문항의 결과를 보완하고,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맥락과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었다.

자료 해석 과정에서는 자기검열 현상과 보웬의 자기분화 이론을 주요 이론적 틀로 삼아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조화와 관계 유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조절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의 기질적 성향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찬반 구조가 아닌,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는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응답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 방법은 별무리학교 공동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되었다.

## VI. 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결과

#### 가. MBTI 성향별 분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질적 성향이 공동체 환경 속에서의 의사소통 방식과 자기표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 대상자의 MBTI 분포를 제시하였다. MBTI 유형은 개인의 대인관계 방식과 의사소통 선호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양상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BTI와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방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인의 MBTI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전략 간 관계」를 참조하여, 개인의 성향이 대화방식과 관계조절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질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BTI를 단순한 성격분류도구가 아닌, 자기표현과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적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고정된 MBTI 유형을 판별하기보다는 공동체 환경 속 다양한 소통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성향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친구, 교사, 프로젝트 및 동아리 활동 등 주요 의사소통 상황에서 선택된 응답을 MBTI의 네 가지 지표(E/I, S/N, T/F, J/P)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향성(E) 지표에 해당하는 응답은 전체 선택 중 65.9%로 나타나 내향성(I) 지표(34.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 집단이 공동체 내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인식 기능과 관련하여 감각형(S) 지표는 62.4%, 직관형(N) 지표는 37.6%로 나타나, 추상적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T)와 감정(F) 기능의 경우, 감정(F) 지표가 57.0%로 사고(T) 지표(43.0%)보다 높게 나타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논리적 판단보다는 관계적·정서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판단(J)과 인식(P) 지표에서는 판단(J) 지표가 55.8%, 인식(P) 지표가 44.2%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동체 활동 속에서 일정 부분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나타난 MBTI 지표별 분포는 연구 대상 집단이 공동체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조율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질적 성향의 분포는 이후 분석에서 자기표현의 정도,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 그리고 공동체 규범과 개인의 표현 욕구 간의 긴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다.

#### 나. 학년별 별무리 학교 가치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별무리학교를 기독교학교, 대안학교, 기숙사학교라는 세 가지 성격 속에서 어떠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개인 중심적인지, 혹은 공동체 중심적인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독교학교로서 별무리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택률을 보였다. 특히 ‘전체예배’는 40명(75.5%)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묵상으로 인한 자기성찰’ 24명(45.3%), ‘연합’ 20명(37.7%), ‘이타적 성품’ 20명(37.7%), ‘섬김과 봉사’ 16명(30.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적 신앙 실천에 해당하는 ‘개인의 비전’(18.9%), ‘개인의 성경공부’(15.1%)와 같은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별무리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개인의 신앙 성장보다는 공동체적 신앙 실천과 집단적 예배 경험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안학교로서의 가치 인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협력’은 30명(56.6%)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업의 주체성’ 29명(54.7%), ‘창의성과 추진력’ 27명(50.9%)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협력’과 ‘자치’와 같이 공동체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항목들 또한 공동체 속에서 발현되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로서의 별무리학교를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공간이라기보다,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숙사학교로서의 가치 인식에서도 공동체 중심적 인식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배려와 존중’은 30명(56.6%), ‘연대(타학생과의 소통)’는 29명(54.7%), ‘규칙’은 28명(52.8%)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기관리’ 또한 23명(43.4%)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 중심적 가치에 대한 응답은 3명(5.7%)에 그쳤다. 이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공간이라기보다,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규범 속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학생들은 별무리학교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인식함에 있어 개인적 성장 요소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공동체적 가치와 집단적 경험을 중심으로 학교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자기표현 양상 분석에서 나타나는 자기검열, 갈등 상황에서의 표현 조절, 그리고 공동체 내 역할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다. 자기표현의 실제 발현 정도

학교 공동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제도를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년 공동체, 어드반, 프로젝트, 동아리, 자치회 및 일상적 상호작용은 모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장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자기표현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학생들이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활동 안에서도 학생들은 집단의 규모, 관계의 친밀도, 위계 구조, 활동의 목적과 분위기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표현을 선택하거나 유보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전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기표현이 실제로 어떤 활동 영역에서, 어떤 조건과 맥락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기표현의 실제 발현 정도를 활동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표현은 활동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기표현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자기표현의 기회가 제공되는 정도와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는 정도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표현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발현되기보다는, 특정 조건과 맥락 속에서 제한적·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학년 공동체 안에서 자기표현 능동 점수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58.5%임으로, 절반 이상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41.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학년 단위의 비교적 큰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자기표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위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학년 차원에서 공식적인 발언의 기회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기회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학년 공동체에서 자기표현은 구조적으로 가능한 행위이지만, 실제 발현 여부는 개인의 성향과 관계적 위치, 집단 분위기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어드반(소규모·심화 활동 공동체)에서는 자기표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가 자기표현이 잘 이루어진다고 답했으며, 아니라는 17%에 불과하였다. 이는 소규모 집단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공통의 목표를 가진 관계 중심적 환경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어드반은 자기표현의 기회가 단순히 제공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관계적 신뢰와 안전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표현이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규모와 친밀도, 관계의 지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그렇다 56.6%, 아니다 43.4%로 나타나 학년 공동체와 유사한 수준의 자기표현 발현도를 보였다. 그러나 주관식 응답을 함께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에서의 자기표현은 전반적으로 조건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표현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주로 의사결정을 위한 설득,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혹은 역할 수행 과정에서 발언을 자기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 활동이 침묵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발언이 개인의 감정이나 내적 경험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성과와 효율을 위한 수단으로 요구되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감정은 자제해야 한다”, “사무적으로 접근한다”, “선후배 관계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응답에서 보이듯,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의견과 생각의 표현은 비교적 허용되지만 감정이나 개인적 불편함의 표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윗사람이 주도한다”, “지목을 받아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은 프로젝트 내 위계 구조와 분위기가 자기표현의 자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자기표현의 기회가 비교적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상황과 역할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67.9%가 자기표현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발현도를 보였다. 이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참여와 낮은 평가 부담,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분위기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형성하며 자기표현을 촉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동아리를 중요도가 낮은 활동으로 인식하거나, 학년 혼합 구조와 관계적 거리감으로 인해 감정 표현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동아리 역시 자기표현이 전면적으로 보장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그 외 활동에서는 그렇다 50.9%, 아니다 49.1%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해당 활동들이 일시적이거나 구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자기표현의 발현 여부가 집단의 성격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순간적인 관계 맥락에 크게 의존함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자기표현의 실제 발현은 집단의 규모, 친밀도, 자발성,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규모·관계 중심 활동일수록 자기표현이 보다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학교 전반에서 자기표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드반과 같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반면, 학년 공동체나 프로젝트와 같은 공식적·위계적 맥락에서는 기능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자기표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교는 다양한 활동과 제도를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기표현의 활성화 정도는 활동의 구조, 집단 규모, 관계적 친밀도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기표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기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적·구조적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자기표현 양상 분석

### 가. 상황적 변수에 따른 자기표현

학생들의 자기표현은 활동의 성격, 집단 규모, 관계적 친밀도, 위계 구조 등 상황적 조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규모·관계 중심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학년 공동체나 프로젝트와 같은 공식적·위계적 맥락에서는 발언이 기능적·선별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자기표현의 기회가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적 환경 속에서만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변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긍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대규모 집단에서는 소규모 토론 모임이나 학급별 의견 공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부담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팀 빌딩 활동, 멘토링, 소규모 프로젝트 등 지속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관계를 형성하고, 위계 구조를 완화하여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면 학생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표현의 목적을 단순한 과제 수행이 아닌 학습과 성장의 과정으로 안내하고 평가 부담을 낮추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학생들이 제공된 기회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돕고, 학교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과 맥락 속에서도 자기표현을 보다 균형 있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나. 성향적 변수에 따른 자기표현

학생들의 자기표현은 개인의 성향, 특히 기질적 특성과 의사소통 선호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MBTI 지표를 통해 외향성과 내향성, 사고와 감정, 감각과 직관, 판단과 인식 등의 성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외향적(E) 성향, 감정(F) 중심 성향, 판단(J)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공동체 활동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기표현을 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내향적(I) 또는 신중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발언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표현이 단순히 기회와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심리적 편안함, 자신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향적 변수를 활용하여 자기표현을 긍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발언의 기회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향적 성향의 학생에게는 소규모 그룹, 짧은 발언, 또는 사전 준비된 의견 공유 시간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감정 중심 학생에게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이나 피드백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성향의 학생이 참여하는 혼합형 활동에서는 역할과 과제를 조정하여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 개개인의 기질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공동체 전반에서 자기표현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다. 자기검열과 갈등 속에서의 자기표현

학생들의 자기표현은 다양한 환경적·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기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다. 먼저 상황적 변수를 살펴보면, 활동의 성격, 집단 규모, 관계적 친밀도, 위계 구조 등이 자기표현의 발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관계 중심적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학년 공동체나 프로젝트와 같은 공식적·위계적 맥락에서는

발언이 기능적·선별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제공하는 자기표현의 기회가 구조적·심리적 환경에 따라 조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안전한 관계 형성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소규모 토론, 익명 의견 제출, 역할 분배 조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유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향적 변수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심리적 성향이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외향적 성향을 가진 학생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내향적 성향을 가진 학생은 상황과 관계적 친밀도에 따라 발언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고 중심(T) 성향보다는 감정 중심(F)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관계적 요소를 고려하며 자기표현을 조절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성향적 차이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더라도 자기표현 양상에는 불균등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향별 맞춤 지원, 예를 들어 내향적 학생에게는 작은 그룹 활동을 통한 점진적 발언 기회 제공,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구조화된 의견 전달 방식 교육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기검열과 갈등 상황에서의 자기표현은 학생들이 의견과 감정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선후배 관계, 집단 내 다수 의견, 위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발언을 자제하거나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개인의 진정한 의견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도 학생이 안전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구조적·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규모 그룹 활동, 익명 의견 제출, 역할 조정, 갈등 관리와 소통 기술 교육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종합하면, 학생들의 자기표현은 상황적·성향적 요인과 심리적 자기검열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한적·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는 단순히 활동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의견과 감정을 발현할 수 있는 관계적·구조적 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자기표현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 VIII. 논의

### 1. 별무리 공동체의 특성과 자기표현

별무리학교 공동체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강한 연합성과 관계 중심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숙형 생활 구조와 공동체, 제자도, 살롬, 소명이라는 핵심 가치는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며, 공동의 삶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공동체

적 환경은 학생들이 서로를 고려하며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공동체의 밀도와 가치 중심성은 자기표현의 방식과 범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의 조화와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조절하거나 유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좋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기대와 압력이 작동하며, 개인의 불편함이나 비판적 의견이 자기검열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로 인해 자기표현은 자유로운 감정 표출보다는 공동체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 결과, 별무리 공동체에서의 자기표현은 전면적으로 억압되기보다는 상황과 관계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소규모 공동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된 환경에서는 비교적 솔직한 자기표현이 가능했으나, 공동의 목표나 분위기 유지가 강조되는 공식적·집단적 상황에서는 자기표현이 기능적이거나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절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표현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현은 공동체의 기대와 관계적 부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은 별무리 공동체가 개인의 자기표현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도록 학습되는 환경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자기표현은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감정 인식과 갈등 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별무리 공동체의 특성과 자기표현의 관계는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상호 긴장 속에서 공존하는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긴장에 대한 인식은 이후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심 전제가 된다.

## 2. 자기검열 관점에서의 해석

별무리학교 공동체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한 강한 관계 지향성과 생활 공동체적 밀도를 특징으로 한다. 기숙형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학습, 예배, 생활 전반을 공동으로 경험하며, 공동체·제자도·살림·소명과 같은 핵심 가치를 반복적으로 접한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들에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과 더불어, 자신의 태도와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의 중요성을 학습하며,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하게 된다.[1][2]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체적 밀도와 가치 중심성은 개인의 자기표현 방식에 일정한 심리적 제약을 동반한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검열은 개인이 타인의 평가나 집단 규범을 의식하여 자신의 감정, 생각, 의견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표현을 억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3] 특히 집단의 가치가 도덕적·신앙적 기준과 결합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발언이나 감정 표현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기표현 이전 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수위를 낮추거나 침묵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한다.[4]

별무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연합과 관계 유지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는 만큼,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불편함이나 비판적 인식이 즉각적으로 표출되기보다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집단 내 갈등이 반드시 외현적 충돌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인 내부에서 감정 억제와 인지적 재해석을 통해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5]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공동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참아야 할 감정’ 혹은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로 해석하며 표현을 유보한다. 이러한 과정은 외부의 강제보다는, 공동체 규범에 대한 내면화와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기검열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6]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별무리 공동체 내에서 자기표현은 전반적으로 금지되거나 억압되기보다는, 관계의 친밀도와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공동체 환경 속에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위험 수준에 따라 표현 전략을 달리 선택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도 일치한다.[4][7] 즉, 제도적으로 표현의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표현의 범위는 공동체의 기대, 관계적 부담,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갈등의 급격한 표면화를 방지하고, 집단 내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2][5] 그러나 자기검열이 반복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정서 인식 능력, 갈등 조정 방식, 그리고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 순응하는 ‘기능적 자아’가 개인의 내적 자아보다 우선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한다.[8]



따라서 별무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양상은 개인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표현을 관리하고 조절하도록 학습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검열은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긴장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지점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하며, 이는 이후 자기분화 이론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기표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8][9]

### 3. 공동체 의식과 개인 간의 균형 문제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자기표현과 단순히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호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별무리 학교와 같은 공동체 중심 환경에서 공동체 의식은 학생들에게 강한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제공하며, 관계 중심적 태도와 상호 배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토대는 학생들이 타인을 고려하며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 의식이 강조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공동체의 기대와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표현이 조심스럽게 조절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공동체의 조화와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갈등 가능성이 있는 의견이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억압하기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적절한 표현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균형 문제는 공식적이거나 집단적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목표나 분위기가 강조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우선하기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그 결과 개인의 생각과 감정은 공동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최소화되거나 기능적으로 표현되며, 이는 자기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환경일수록 개인의 심리적 부담이 은폐된 형태로 축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 간의 균형 문제는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경험과 목소리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때, 개인은 공동체에 '순응하는 존재'로 머물 위험이 있다. 반대로 공동체가 개인의 차이와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때,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성장을 지지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제시될 해결 방안에서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기표현을 대립적으로 분리하기 보다, 두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공동체 의식과 개인 간의 균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관계적 과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VIII. 해결 방안 제시

### 1.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를 통한 자기표현과 공동체성의 균형

별무리 학교의 공동체 환경에서는 개인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며,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관계와 조화를 고려한 선택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기표현은 종종 개인의 내면에 집중된 행위로 인식되며,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학교 사례와 설문 응답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기보다 공동체 분위기와 타인의 반응을 우선 고려하며 표현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에서 자기표현이 자연스럽게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자기표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자기표현이 어떠한 방식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는 별무리 학교 사례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희용의 대학 글쓰기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표현 글쓰기는 감정의 단순한 표출이나 사적인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성찰, 정서적 회복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자기표현이 공동체성과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안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인지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별무리 학교의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맥락은 확인된다. 공식적인 공동체 활동이나 집단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자기표현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반면, 글쓰기 과제, 개인 성찰 기록, 소규모 나눔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보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토로하기보다 그 경험의 의미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성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가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내면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는 자기표현의 범위를 개인의 내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의 자아 인식으로 확장시킨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의미 있는 서사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 속에 위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자기표현이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이나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글쓰기 이후 자신의 감정을 보다 정제된 방식으로 언어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별무리 학교에서 나타나는 자기검열 현상은 자기표현을 줄이거나 억제해야 할 문제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자기표현의 질과 방향성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감정 인식과 자기 이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반면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왜곡 없이 인식하면서도, 공동체를 고려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별무리 학교 사례에서 자기표현과 공동체성의 균형은 표현의 축소나 통제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는 공동체 속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표현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 간의 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논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2. 별무리 공동체 적용 방안

자기표현과 공동체 의식은 종종 상호 대립적인 개념으로 인식된다. 특히 공동체의 조화와 관계 유지를 핵심 가치로 삼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가 이기적이거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해석되기 쉽다. 본 연구의 사례인 별무리학교 역시 공동체, 연합, 섬김과 같은 가치가 교육 전반에 강하게 강조되는 기숙형 기독교 공동체로서,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분위기와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공동체적 책임감과 관계적 민감성을 함양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표현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자기검열 현상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별무리 공동체의 관계 갈등 양상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준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이나 기숙사 생활, 자치 활동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의견 차이를 경험하더라도, 공동의 목표 달성이나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유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이타성이 개인의 표현 욕구보다 우선시되는 구조 속에서, 자기표현이 갈등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공동체 환경에서 개인이 관계 유지를 위해 자기표현을 조절하거나 검열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positive expressive writing)는 별무리 공동체 안에서 자기표현과 공동체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희용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표현 글쓰기는 성찰적 글쓰기나 치유적 글쓰기와 분리된 독립적 범주라기보다, 자기 인식과 성찰, 정서적 회복이 연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 평화와 자기돌봄의 효과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는 자기표현의 방향성을 ‘불만의 표출’이 아닌 ‘의미의 재구성’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환경에 적합한 방식이다. 긍정적 쓰기는 개인의 상처나 결핍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자신의 강점과 성장 가능성, 의미 있는 경험에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자기표현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는 자기표현의 범위를 사적인 내면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의 자아 인식으로 확장한다. 자기 경험을 성찰하고 이를 긍정적인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재해석하게 만들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로 이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 밀도가 높은 별무리 공동체 환경에서 자기표현이 즉각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별무리 공동체 사례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의 균형이 표현의 억제나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표현의 질과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는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는 실천적 통로로서, 공동체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공동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검열 현상을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 IX. 결론

###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인 별무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자기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기능하는지, 혹은 자기검열을 유발하는 압력으로 작동하는지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자기검열 이론과 머레이 보웬의 자기분화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공동체와 개인 간의 긴장 구조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별무리 공동체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높은 연합성과 관계 중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유보하는 자기검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표현은 제도적으로 금지되거나 억압되기보다는, 공동체의 기대와 관계적 부담을 고려하여 상황적으로 선택·조절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식적이거나 집단적인 맥락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이러한 자기검열은 단순한 소극성이나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보웬의 자기분화 개념에서 말하는 정서적 융합 상태와 유사한 양상으로, 개인이 공동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자기표현과 공동체성이 반드시 대립적인 개념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 개념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기표현이 부정적 감정의 표출이나 갈등 제기로만 인식될 때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성찰적·긍정적으로 재구성할 경우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표현의 ‘양’이나 ‘강도’보다, 표현의 ‘방향’과 ‘방식’이 공동체성과의 균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별무리 공동체에서의 자기표현은 억압과 자유의 이분법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심리적 선택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환경 속 자기표현의 균형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이후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이론적·경험적 기초를 제공한다.

##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별무리 학교가 강조하는 공동체 중심의 교육가치관과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인간관계 및 자기표현 사이의 긴장에 주목하고, 그 간극 속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본질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공동체성, 이타성, 연합과 같은 가치들은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이상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개인의 감정 표현이나 의견 제시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침묵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나 적응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공동체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별무리 학교의 교육이념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가치관과 실제 학생 경험 사이의 괴리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공동체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그 가치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를 묻는 시도이며, 공동체 교육의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비판적 성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위축 현상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자기검열과 자기분화 이론을 통해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관계적 압력과 정서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공동체 속 개인의 문제를 개인 내부가 아닌 관계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관점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공동체성과 자기표현 사이의 긴장이 현대 교육 공동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드러낸다. 초대교회 역시 강한 연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불균형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성경적 사례는 오늘날 기독교 교육 공동체가 개인의 자기표현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표현 문제를 개인의 태도나 용기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공동체 문화와 사회심리적 구조의 문제로 조명함으로써, 공동체성과 개인성의 균형이라는 교육적·심리적 과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대상이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별무리학교 공동체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모든 학교 공동체나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별무리학교는 기독교적 가치와 공동체성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대안학교로서, 일반 학교와는 다른 생활 구조와 관계 형성 방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갈등의 양상과 해결 방안은 이러한 교육적·종교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응답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설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갈등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 당시의 정서적 반응을 충분히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라는 특성상 응답자가 관계 유지나 공동체 분위기를 의식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완전히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 방식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개인의 자기표현은 갈등 상황의 맥락, 관계의 친밀도, 집단 분위기와 같은 상황적 변수와, 성격, 정서 민감성, 갈등 회피 성향과 같은 성향적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변수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개인별 자기표현 양상의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은 자기표현과 자기검열에 관한 이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와 공동체 윤리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여 도출된 제안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실제 별무리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성향적 변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결 방안을 실제 공동체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4.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별무리학교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과 관계 갈등 양상을 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에 따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재학 기간에 따른 차이를 본격적으로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다. 별무리학교는 중학교 과정부터

공동체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과 고등학교 시기에 새롭게 유입된 신입 및 편입생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학 기간의 차이는 공동체 가치의 내면화 정도와 자기표현 및 자기검열 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별무리 중학교 출신 학생과 고등 신입·편입생 집단을 구분하여 공동체 의식, 자기분화 수준, 갈등 표현 방식의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연구자의 참여 관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자기표현을 유보하게 되는 내적 판단 과정과 감정 경험을 충분히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이나 집단 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관계 유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갈등 발생 시점에서의 자기표현 양상에 초점을 두었으나, 갈등 이후 관계 변화나 공동체 참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갈등 경험 이후 학생들의 관계 회복 여부, 정서적 거리감의 변화, 공동체 활동 참여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자기검열이 단기적으로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혹은 장기적으로 관계 피로와 단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개입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의 안전한 의사소통 규칙 설정, 감정 표현 훈련,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 등을 공동체 활동에 적용한 이후 자기표현 수준과 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논의를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제언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 X. 참고문헌

- [1] L. R. Pondy. (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 [2] M. A. Rahim. (2017). Managing Conflict in Organizations.
- [3] E. Noelle-Neumann. (1974). The Spiral of Silence.
- [4] R. L. Pinkley. (1990).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 [5] B. J. Kim & H. S. Lee. (2014). An Analysis of Difference in Conflict Management Style.
- [6] S. H. Lee & Y. W. Suh. (2015). The Effects of Disagreement, Interference, Negative Emotion.



- [7] T. Greitemeyer & B. Weiner. (2003). Asymmetrical Attributions for Approach Versus Avoidance Behavior.
- [8] M. Bowen.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 [9] K. Kerr & M. Bowen. (1988). Family Evaluation.
- [10] 김희용, 「대학 글쓰기에서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positive expressive writing)의 의미와 수업 구성안」, 2022.
- 김미라·하영운. (2020).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분석: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 『부부가족상담연구』, 1(2), 31-51.
- 김미라·하영운, 앞의 논문, p.34.
- 김광철·송진호, 「예술대학 교육환경 속 갈등관계에 따른 자기검열 연구: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박사학위논문, 152쪽, 재인용.
- D. Bar-Tal. (2017). Self-Censorship as a SocioPolitical-Psychological Phenomenon: Conception and Research. Political Psychology, 38(1), 37-65.
- 김광철·송진호, 「예술대학 교육환경 속 갈등관계에 따른 자기검열 연구: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박사학위논문, 152쪽, 재인용.
- 김광철·송진호, 「예술대학 교육환경 속 갈등관계에 따른 자기검열 연구: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박사학위논문, 152쪽, 재인용.
- Roberts & R. Nason. (2011). Nobody says no: Student self-censorship in a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 activity. Journal of Learning Design, 4(4), 56-68.
- 김광철·송진호, 「예술대학 교육환경 속 갈등관계에 따른 자기검열 연구: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박사학위논문, 152쪽, 재인용.
- 김광철·송진호, 「예술대학 교육환경 속 갈등관계에 따른 자기검열 연구: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9학년도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 (원저: Kim & Lee, 2014; Pondy, 1967; Sayeed, 2001)
- 김광철·송진호, 앞의 논문, 재인용.
- (원저: Pinkley, 1990; Rahim, 2017)
- 김광철·송진호, 앞의 논문, 재인용.
- (원저: Lee & Suh, 2015)
- 김광철·송진호, 앞의 논문, 재인용.
- (원저: Weiner, 1980; Weiner, 2010; Greitemeyer & Weiner, 2003)
- Hans Küng, Was ist Kirche?, 이흥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경북: 분도출판사, 1984),

85-86쪽.

Gerhard Loh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경북: 분도출판사, 1985), 135쪽.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88-89쪽.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4), 72쪽.

Christine D. Pohl. 『공동체로 산다는 것』, 9쪽.

성경. 사도행전 2:42-47.

성경. 사도행전 5:1-11.

성경. 사도행전 6:1-7

강병철. 「온가족 공동체 예배를 통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2-23쪽 재인용.

최영주. 「연인의 MBTI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전략 간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8, 33-34쪽

김광철·송진호. 「예술대학 교육환경 속 갈등관계에 따른 자기검열 연구: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재인용.

Bowen, M.,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1978.

김희용. 「대학 글쓰기에서 긍정적 자기표현 쓰기(positive expressive writing)의 의미와 수업 구성안」, 2022.

Smyth, J. M. & Pennebaker, J. W. "Exploring the Boundary Conditions of Expressive Writing," Journal of Personality, 2008.